

거나 영원히 개봉되지 않을 끝없는 수수께끼일 뿐이다. 표면들은 객관적 대상의 표피가 아니라, 낱장으로 오려지고 붙여지고 꺾매지며 훑날리는, 심층의 비밀이 드러나 있지 않은 빈 공백이다.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은 경계 지대와 가장자리들이다. 들뢰즈는 사건들은 가장자리에서만 생성하고 증식된다고 말한다. 가시적인 것이나 개념적인 것은 들추어진 표면을 따라서 펼쳐진다. 심층으로 깊이 들어가는 대신,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끝없이 다른 방향으로 이행한다. 송명진의 작품은 깊이 아닌 넓이에서, 배후에 아무것도 없는 표면들 위에서 한계 지어지지 않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색채의 화음과 형태의 리듬

성낙희의 전시는 마치 재즈나 전자음악을 듣는 느낌을 준다. 전시된 16개의 그림이 110×130cm이거나 120×130cm의 캔버스로 되어 있고 화이트 큐브에서 다양한 높낮이로 배치되어 있어 설치

방식 자체도 리듬을 탄다. 그림에서 무엇을 읽거나 는 거의 정사각형으로 보이는 화면을 채우는 색채의 리듬이 두드러진다. 유기체적이며 기하학적인 요소들이 미묘하게 결합되고 배열된 그림에서 제목은 비정형적 공간에 다가가는 열쇠가 되어준다. 전시 부제도 '변환(Transformation)'이다. 그러나 언어의 속성이 그러하듯이, 말에는 거대한 심연이 놓여 있고, 이 막간의 공간에서 형태와 흔적, 색조들이 뒤섞이며 미지의 것을 생성한다. 〈꽃(Bloom)〉 〈상승(Rise)〉 〈도약(Leap)〉 등에서는 꽃잎이나 꽃씨가 날아오르거나 물방울이 튀는 듯한 이미지나 색이라는 조형 요소들에 실려 전달된다. 〈본드(Whirl)〉 〈흐름(Stream)〉 등에서는 조형 요소들의 밀도 차이에 의해 전진과 후퇴, 상승과 하강, 응집과 분산의 물리적인 운동감을 보여준다.

〈상승(Escalade)〉이나 〈속도(Velocity)〉는 기계



은 인공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 선과 곡선이 함께 어우러져
 되고 질서 있게 배치되거나 구축되어 있지만 명확한 대상을
 할 수 없는, 요컨대 어느 것도 닮지 않은 형상들이다. <공명
 (Resonance)> <응집(Cohesion)> <근원(Source)>은 중앙으로부터
 발산되는 강력한 색과 선의 흐름이 특징적이다. 다층의 계열로
 된 밝은 형태로부터 어두운 바탕 면으로 뻗어나가거나 굴절
 된 색선들이 출발하는 명확한 지점은 없다.

심은 보이지 않으며, 시점에 따라 조금씩 이동하는 듯하다.
 의 그림에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도상이나 표상은 이심
 권적인 원환 속에서 끝없이 되돌아오는 형상들 속에서 전복
 이 영접회귀의 원환들은 발산과 탈중심화를 통해 어떤 효과
 을 낳는다. 들뢰즈에 의하면 영접회귀는 동일한 것의 반복이 아
 니라 카오스를 긍정하는 잠재력을 가진다. 그것은 표상의 정합
 과 고유한 혼돈과 방향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들은 영접회귀가 시물라크르들만을 되돌아오게 한다고 말



<성낙회>전 전시 광경

왼쪽 페이지
 왼쪽 · <반향(Reverb)>
 캔버스에 플래시
 페인트 110×130cm 2008
 오른쪽 · <근원(Source)>
 캔버스에 플래시 페인트
 120×130cm 2008

한다. 시물라크르는 다른 모든 차이들에 스스로를 열고, 모든 것
 을 표면으로 기어오르게 하며, 이동성과 강렬함을 만들어낸다.
 강도의 차이는 분절되고 발산되는 계열들로 열린다. 원의 중심에
 는 차이가 놓여 있으며, 가장자리는 발산하는 계열들을 통과하는
 영원한 이동이다. 성낙희의 회화에서 주어진 대상이나 상징적인
 코드화로부터 비상하는 또 다른 매개는 색채이다. 색채의 대조는
 화면의 활기와 더불어 비정형적 공간에 지속성을 부여한다. 제목
 으로 나타나는 개념적 언어는 조형적인 언어로 번역된다. 그러나
 양자는 부호적 등가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변조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들뢰즈의 또 다른 책 <감각의 논리>가 언급하듯, 가치
 의 관계 대신에 스펙트럼 질서 안에서 접근된 색조들을 나란히 놓
 음으로써 변조는 팽창과 수축이라는 이중적 움직임이 된다.

성낙희와 송명진의 작품에서 깊이는 평면들의 결합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표면적인 깊이이다. 깊이와 달리, 표면은 그 변화무쌍
 한 양태로 복수성과 다양함을 긍정한다. 그들의 작품은 미학적 철
 학적 원리들을 일차 또는 전체와 동일시하는 깊이의 관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여기에서는 주체나 객체, 회화의 자기 동일성
 이나 모순이 아니라, 단지 유사성과 차이, 구성과 해체, 공존과 와
 해가 있을 뿐이다. 다시 <의미의 논리>의 어법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의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
 성들, 조합들이다. 그들의 작품에 존재하는 가로지름은 원인들이
 나 인과 계열들의 환원 불가능한 다수성, 원인들을 하나의 총체로
 결합할 수 없는 불가능성을 드러낸다. 그것은 원자들처럼 하나의
 동일한 물체 내에서 이질성을 만들어낸다. 그들이 작품은 다양한
 것들의 자체 내 이질성과 또한 다양한 것들의 유사성을 말함으로
 써 미로와도 같은 먼 우회로를 거쳐 다시 자연과 가까워진다. 자
 연의 본질적인 속성은 다양성이기 때문이다. ●

이선영 미술평론가. 199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석남 젊은미술이론가상(2005),
 한국미술평론가협회상(2009) 수상

